

울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회복세

2006년 35만1072TEU로 10% 증가 ... 2004-05년에는 크게 부진

2007년 울산항의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3년만에 증가했다.

울산시에 따르면, 2006년 울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물량은 35만1072TEU로 잠정 집계돼 2005년 31만6431TEU에 비해 3만4641TEU(10%) 증가함으로써 2003년 이후 3년만에 성장세를 나타냈다.

울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컨테이너 터미널이 개장된 1993년 1만8000TEU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3년 30만TEU를 넘어섰으나 경기침체의 장기화 여파로 2004년과 2005년에는 30만-31만TEU 선에 그쳤다.

2006년에도 유가 인상과 환율 급등 등으로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돼 일부 공장이 가동률을 줄이는 등 울산지역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웠으나 울산시가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항만 세일즈에 본격 나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.

울산시는 경기가 회복되고 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이 개장되는 2009년에는 50만TEU 이상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울산시 관계자는 “2007년부터 화주와 선사, 관련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물류 유치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자율적인 물류 유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수출기업 CEO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컨테이너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1/04>